

양현종 3이닝 무실점...강습타구에 '휴~'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한화에 5-0 영봉승
임창용도 1이닝 2탈삼진
황윤호 솔로포 등 2타점

KIA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5-0 승리를 거뒀다. 양현종은 두 번째 실전 피칭을 3이닝 무실점으로 소화했다.

KIA가 1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9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5-0 영봉승을 거뒀다.

양현종을 시작으로 임창용-김세현-유승철-하준영-이종석이 순서대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베스트 멤버로 나선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지난 23일 요코하마전에 이어 양현종이 이번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섰다.

1회초 이용규를 유격수 직전타로 처리한 양현종은 송광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아웃을 채웠다. 3번 정근우에게 좌측 2루타를 허용했지만 3루수 땅볼로 김태균을 처리하면서 1회를 마무리했다.

2회 선두타자 이성열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뒤 최진행의 강습 타구에 양현종 정면으로 향하는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양현종이 본능적으로 글러브를 내밀어 공을 잡아내기는 했지만,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잠시 마운드에 누워있던 양현종은 연습 투구 뒤 다시 경기에 나섰다. 7번 호일에게 두 번째 안타를 내준 양현종은 정범모에게 두 번째 삼진을 뽑아내면서 2회를 넘겼다.

이용규의 내야안타로 시작된 3회에는 볼넷이 이어지면서 무사 1:2루에 물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규의 3루 도루 실패 뒤 양현종은 정근우와 김태균을 각각 우익수 플라이와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예정된 피칭을 종료했다.

양현종의 성적은 3이닝 3피안타 1볼넷 2삼진 무실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43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구속은 최고 144km까지 찍었다.

이날은 양현종의 생일이기도 했다. 양현종은 불펜포수 이동건이 직접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경기장에 나왔다.

양현종은 "아침에 동건이가 고기랑 미역을 사서 미역국을 끓여줬다(웃음)"며 "첫 경기보다 밸런스가 좋아지고 나이가 느껴진다. 아직 공이 한두 개씩 빠지는 느낌은 있지만 계획대로(컨디션이) 잘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2회 강습 타구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타구가 내게로 많이 날아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 던진 구종이 커브였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많이 놀랐다"며 한숨을 돌렸다.

'최고참' 임창용의 첫 등판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양현종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임창용은 1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5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까지 기록했다. 이번 캠프의 '샷별' 유승철도 1이닝 1피안타 2탈삼진의 피칭으로 자신감을 더했다.

한편 타석에서는 유격수 겸 7번 타자로 나온 황윤호가 돋보였다. 2회 선두타자로 나와 한화 윤규진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터트린 황윤호는 3회 무사 1:3루에서는 중견수 방향으로 공을 보내 1타점 희생플라이를 만들었다.

허리가 좋지 않아 페이스를 조절했던 최형우는 6회 유민상의 대타로 나와 중전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컨디션에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KIA는 2일에는 SK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글 사진=wool@kwangju.co.kr



KIA 양현종이 1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두 번째 피칭에 나선 양현종은 3이닝 3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훈련 '왕'...타격 잘하는 유격수 또 탄생하나

캠프 주목 새 얼굴 황윤호

김선빈 백업 위해 NC서 영입
"반쪽 선수" 안되려 자세 교정
"나지완 형 조언 덕분에요"



얼굴이다.

내야수 황윤호는 지난 겨울 2차 드래프트를 통해 NC 다이노스에서 이적한 선수다. '유격수 백업' 고민에 빠진 KIA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밖에 없는 선수이기도 하다.

황윤호는 1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첫 타석에서 윤규진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터트린 그는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플라이로 타점을 보이며 약점으로 언급되던 타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안정적인 수비'가 장점이라고 자평하는 그는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유격수 고민을 풀 적임자로 떠올랐다.

초구에 홈런을 기록한 황윤호는 "선두 타자였고 하위 타순이라서 직구 승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

"지완이 형이 인터뷰에서 이야기 해달라고 했어요"라면서 미소를 지은 황윤호(사진). 2018 스프링 캠프에서 KIA 타이거즈가 주목하는 새



KIA 황윤호가 1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2회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포를 터트린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다. 초구니가 헛스윙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했다. 운이 좋았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 주자가 절해했다"고 말했다.

황윤호의 '타격 어필'은 준비와 도전이 어우러진 결과다.

그는 "그동안 방망이가 부족했다. 반쪽 선수가 되기 싫어서 겨울에 연습을 많이 했다. 왼팔이 들려 나가면서 스윙이 쳐졌는데 짧게 간결하게 나오게 하고 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타격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며 "준비"를 이야기했다.

선배의 조언과 이를 수용한 그의 도전 정신도 한몫했다.

황윤호는 "며칠 전에 (나지완) 선배가 어깨가 들어간다고 방망이를 내어서 치는 게 어렵겠냐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힘 빼고 치게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서 잘 치는 타자가 해준 이야기라서 쉬는 날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해봤다. 홈런 치고 들어오니깐 선배가 농담으로 인터뷰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웃음을 보였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 3연속 홈 개막전 승 도전



K리그2 내일 안양과 격돌

새로 시작하는 광주 FC가 FC 안양을 상대로 3년 연속 홈 개막전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안양과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홈 개막전을 갖는다.

지난 시즌 강등의 아픔을 겪은 광주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광주는 2018시즌을 재도약의 해로 삼기 위해 동계훈련 기간 대대적인 리빌딩을 단행했다.

현역시절 두뇌 플레이로 명성을 떨친 박진섭 감독을 사령탑으로 해 임민혁, 김정환, 두현석, 김해성 등 청소년대표를 지낸 유망주들을 영입, 힘을 더했다. 여기에 류언재, 김윤수, 김태운 등 팀에 헌신할 수 있는 선수들도 불러들여 새 진용을 짰다.

박진섭 감독은 순천과 일본 등에서 진행한 2달간의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자신의 색을 입히는데 주력했다. 광주를 상징했던 '팀플레이'라는 색에 기술적인 부분을 더한 것이 핵심이다.

그 중심에는 나상호, 임민혁, 두현석 등 젊은 기대주들이 있다. 나상호는 지난 시즌 하반기 맹활약하며 광주 에이스 자리를 예약했고,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은 임민혁과 두현석은 박진섭 감독

축구에 녹아들었다.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따라와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중원과 측면에서 날카롭고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안양과 홈 개막전은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경기다. 젊은 광주의 특성상 초반부터 상승세를 타야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광주는 3년 연속 홈 개막전 승리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만들게 된다.

상대인 안양 역시 고정용 감독 선입과 대대적인 선수 보강으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구성했다. 서로 지난해와 다른 전력으로 맞붙기 때문에 초반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

주장 안영규는 "선수단 모두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이변 홈 개막전에서 털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동계훈련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홈 개막전 승리로 팬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홈개막전을 맞아 선수단 팬사인회, 미니 축구게임, 어묵 나눔 등의 이벤트를 남문 출입구에서 진행한다. 또 LG 스타일러, 건조기, 공기청정기, 노트북 등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FA컵 16강 로치데일과 재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시즌 12호 골을 터트린 뒤 하트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패널티킥 무효에도 멀티골

잉글랜드 FA컵 16강

토트넘 손흥민 2골 1도움

46일만에 시즌 12·13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이번 시즌 첫 멀티골을 뽑아냈다.

손흥민은 1일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치데일(3부 리그)과 2017-2018 잉글랜드 FA컵 16강 재경기에서 전·후반 67분을 활약하며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3분 에릭 라멜라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제친 후 패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지난 1월 14일 에버턴전에서 시즌 11호 골을 터트린 후 46일 만에 나온 12호 골이다. 이번 시즌 FA컵에서는 첫 득점이다.

손흥민은 이후 전반 28분 패널티킥도 성공시켰으나 슈팅 직전에 멈춰섰다. 이유는 득점이 무효가 되고 경고까지 받았다.

놓쳐버린 멀티골의 아쉬움은 후반에 바로 해소됐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라멜라의 완벽한 패스를 골문 앞에서 오른발로 차 넣어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기록한 이번 시즌 첫 멀티골이다. 손흥민의 마지막 멀티골은 지난해 5월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

이날 손흥민은 후반 14분 골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오른테의 헤딩 득점에 도움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최근 골 침묵에서 완전히 벗어나 맹활약을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현 ATP 멕시코오픈 8강 진출

정현(29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멕시코오픈(총상금 164만2795 달러) 8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1일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에르네스토 에스코베도(123위·미국)를 2-0(6-3·6-1)로 제압했다.

지난주 델레이비치 오픈에서도 8강까지 오른 정현은 2주 연속 투어 8강의 성적을 내며 순조로운 복귀를 알렸다.

1월 말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 신화'를 쓴 정현은 당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와 준결승 도중 발바닥 통증으로 기권했다. 이후 약 3주간 치료 및 재활에 전념한 뒤 지난주 델레이비치 오픈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정현은 이 대회 8강 진출로 상금 4만4420 달러(약 4800만원)와 랭킹 포인트 90점을 확보하며,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27위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정현이 상대인 에스코베도는 전날 4번 시드의 잭 소크(10위·미국)를 꺾으며 기세를 올린 선수다. 게다가 관중석을 메운 팬들은 멕시코계인 에스코베도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1996년생 동갑인 에스코베도를 맞아 정현은 1세트 상대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산뜻하게 출발했고, 게임스코어 5-3의 매치포인트에서는 상대가 더블 폴트를 저지하며 끝났고, 2세트에서는 정현이 게임스코어 3-0까지 달아나며 전의가 꺾인 에스코베도를 몰아세웠다. /연합뉴스